방탄소년단으로 뜨거웠던 LA 로즈볼

방탄소년단이 월드 투어의 막을 올렸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4~5일 로스앤젤레스 로즈볼 스타디움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LOVE YOUR-SELF: SPEAK YOURSELF) 투어를 시작했다. 12만여 명의 팬들이 이틀 동안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1922년 지어진 로즈볼 스타디움에는 최대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무대장치와 객석 안전 등을 고려해 매회 6만여 명의 팬만 입장할 수 있었다. 팬들은 방탄소년단의 몸짓 하나하나에 환호했고, 일부 팬들은 한국말로 따라 부르기도 했다.

첫 스타디움 투어를 펼친 방탄소년단은 "드디어 또 하나의 꿈이 이뤄졌다. 이 자리는 아미(ARMY) 여러분이 만들어준 무대다. 함께 공연을 즐기며 축제를 만들어 줘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역시 우리의 무대와 음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국 가수 최초로 뉴욕 시티필드에서 스타디움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은 올해 전 세계 8개 도시에서 펼쳐질 16회 공연 전부를 최소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로즈볼 스타디움에 이어 11일과 12일에는 시카고 솔저 필드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오는 18일과 19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북미 투어를 이어간다.

다비치 완전체로 컴백

여성듀오 다비치(이해리, 강민경)가 17일 컴백한다.

다비치는 9일 정오 공식 SNS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첫 번째 컨셉 티저를 공개했다.

컨셉 티저에는 다정히 서로에게 기댄 채 따뜻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해리와 강민경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인스트 음악을 배경으로 컴백 일자와 신곡 제목이 처음으로 공개 돼 기대를 모은다.

이번 신곡은 지난해 7월 '마치 우린 없었던 사이' 이후 약 10개월 만의 완전체 컴백이어서 더욱 기대감을 주고 있다.

2008년 정규 앨범 'maranth' 로 데뷔한 다비치는 '미워도 사랑하니까' '8282' '두사랑' '사랑과 전쟁' '사고쳤어요'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너 없는

시간들'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키며 음원 강자로 사랑받았다.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단독 콘서트 'DAVI-CHI CONCERT 2018' 를 연 다비치는 올해 강민경이 첫 솔로 앨범 '강민경 1집' 과 드라마 '그녀의 사생활' OST를 연달아 발표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집 해제 이민호, '더 킹' 주인공 낙점

최근 사회복무요원에서 소집 해제된 배우 이민호(사진)가 스타 작가 김은숙의 새 드라마 '더 킹: 영원한 군주'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더 킹: 영원한 군주' 는 내년 상반기 방영을 목표로 올 하반기 제작에 돌입한다. 방송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드라마는 '평행세계' 를 소재로 한다. 신이 인간의 세상에 풀어논 악마가 연 평행세계의 문을 닫으려는대한제국 황제 이곤과, 누군가의 삶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형사 정태을이 세계를 넘나들며 공조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민호는 8일 이민호는 스타 인기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웨이보 '스타차트' 1위에 오르며 '한류스타' 파워를 과시했다. 이민호는 조회수, 인터렉티브지수, 사회영향력, 애정지수 등 웨이보 스타차트 4가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 대체복무로 공백이 있었음에도 중화권에서 뜨거운 인기를 실감케 했다.

1263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

9	3			4				
1		5		8	7			
	8	7	3			1		
		9			4	3		1
	6				5		7	
7			9		3		4	
						7	9	5
		6			1			
	9	4				6		